

탄소중립 이행 탄소산업 역할 모색

탄소산업진흥원, 내달 3~5일 '카본코리아 2021' 개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윤혁)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20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카본코리아 2021'을 개최한다.

카본코리아 2021은 탄소산업에 의한 탄소(CO2)중립 실현을 주제로 지구 환경을 정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탄소융복합 기술을 소개하고, 탄소소재 기술 분야 인력양성, 창업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JEC Korea 2021, 제15회 국제탄소페스티벌과 공동 개최되며, 카본코리아 전시관 내에는 총 50여 개의 국내외 기업·기관 등이 참가해 탄

소복합재 분야 기술을 선보인다.

카본코리아 2021 전시관에서는 'Earth Coding & Earth Clearing'을 주제로 ▲탄소소재 및 융복합 부품을 통한 CO2 저감 기술 ▲대기·수질·토양 오염 방지 및 CO2 활용 기술과 관련된 16개 기업의 탄소제품 전시가 이루어진다. 또한 15개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문제를 전문 연구인력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문제해결형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소개

하고,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대상 창업 콘테스트 ▲대학생 카본 3D 프린팅 챌린지 등 다양한 탄소산업 진흥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전시 사전 등록 및 온라인 참가는 카본코리아 2021 홈페이지(<http://carbonkorea.co.kr>)를 통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고구마 신제품 '소담미' 우수성 알린다. 농촌진흥청은 고구마 신제품 '소담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7일 전남 해남군 마산면에 있는 농가에서 현장평가회를 실시했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해남군농업기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평가회에는 국립종자원을 비롯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계자와 농업인, 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담미'와 외래 품종 '베니하루카'의 겉모양(외관 상품성)과 맛을 비교 평가하며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함께하는 유통혁신상' 수상

전주김제완주축협 고창부안축협 등 2곳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 축산부문 허장경영 실시



전주김제완주축협이 28일 2021 농협중앙회 함께하는 유통혁신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8일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전주김제완주축협 회장)를 방문하여 우수조합에 대한 시상 및 축산부문 당면 현안 논의 등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실적 우수조합에 대한 시상으로 전주김제완주축협과 고창부안축협이 '함께하는 유통혁신상'을 수상했으며, 고창부안축협이 '계통사표 6만톤 달성'을 수상했다.

특히, 함께하는 유통혁신상은 법농협 축산물 유통혁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선도 농축협을 시상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고자 올해 신설된 상이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친환경 자원화사업 활성화' 부문

을, 고창부안축협은 '우량송아지 생산안정 기반구축' 부문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태환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지역축협과 유통사업 협력을 강화하고 공관사업과 소매유통 활성화, 농협 축산경제 사업 전반에 대한 디지털 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빅데이터와 ICT 기술 집적으로 축산안정 기반구축' 부문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 "겨울철새 유입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AI 발생이 우려되므로 가금류 사육이 많은 지역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단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노후준비서비스 전문가 양성 국민연금-동원대, 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노후준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대학교(총장 이걸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동원대학교 노인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준비 4대 영역에 대한 강의와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아울러, 전공심화 학사과정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신설되는 노후준비 전문상담 과정에 공단은 전문교육(노후준비 총론, 재무설계) 제공·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노인복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노후준비 서비스를 최초 도입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2년 동안 529만여 명의 국민에게 노후준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안정된 노후준비에 기여해왔다.

박양숙 중앙노후준비센터장(공단 복지이사)은 "이번 산학협약을 통해 미래의 노후준비 전문가 양성 지원 모델을 만들고 이를 더욱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각도의 협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오늘부터 공공비축 포대벼 검사

농관원 전북지원, 12월 말까지 14개 시·군 324개 검사장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대섭, 이하 전북농관원)은 2021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를 29일 전주시 원산구 중인동(모악창고)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북 14개 시·군 324개 검사장에서 실시한다.

올해 전북에 배정된 포대벼 검사량은 총 5만6,005톤으로 일반벼 55,145톤, 친환경벼 860톤이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1~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2021년산 메벼에 한해 수분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kg(소형)과 800kg(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수분 13.0% 미만일 경우는 수분함량 미달로 등급이 낮아지게 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해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되며 주의해야 한다. 수분함량과 제현율, 피헤입 등 품질검사를 거쳐 등급(특등 1등, 2등, 3등)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벼의 매입가격이 결정되고, 등의품질저 등급 미달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관원은 매입 검사장 내 모든 술·음식 등 취식을 금지하고, 등급판정 현장 단체 참관을 금지하며, 출입자 명부 작성, 농가별 출하시간 지정·운영, 검사장 주변 안전(경계선) 설치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농관원 관계자는 매입 검사장에서 '미스' 착용·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준수, 매입 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9월 전북 수출 6억3743만 달러

전년비 10.9% ↑

9월 전라북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9%가 증가한 6억3,743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3.1%가 증가한 19억6,553만 불을 기록하며 완연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가 28일 발표한 "2021년 9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한 6억3,743만 달러, 수입은 30.3% 증가한 5억1,494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1억2,249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동제품 합성수지, 농약 및의약품이 수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동제품(6,289만, 42.9%)에 이어 합성수지(5,920만, 40.1%), 농약 및 의약품(4,539만, 121.9%), 정밀화학원료(4,361만, -21.4%), 자동차(4,226만, -2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동제품의 경우 7월부터 3개월 연속 최대 수출품목이며, 올 한해 누적기준으로도 84.5%가 증가하며 전북지역 1위 수출 품목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억3,612만, 3.3%), 미국(1억1,751만, 21.4%), 일본

(4,110만, 20.2%), 베트남(3,311만, -31.7%), 브라질(2,772만, 489.7%) 등이 5대 수출대상국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제품의 중국 수출이 급증(2,743만, 81.9%)한 부분과 미국으로의 농기계(트랙터) 수출이 증가(3,237만, 31.2%)하며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시험분석 지원 참여기업 모집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도내 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험분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인시험분석기관 등을 통해 소기업이 개발한 시제품 또는 제품 등에 대한 품질 및 성분, 성능 등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총 22개 소기업을 지원해 당초 계획했던 100개보다 두 배 이상 지원했으며, 편성예산도 조기 소진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의 제품시험분석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하반기 추가예산을 편성해 11월까지 지원한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군장에너지가

SGC 에너지로 새롭게 도약 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

태양광발전사업

폐열회수발전사업

Clean Energy Provider

나누는 기쁨, 따뜻한 세상, 친환경 에너지 기업 SGC에너지

주소 : 전북 군산시 임해로 333(소룡동)
Tel. 063)460-7200 Fax. 063)460-9166 <http://www.sgcenergy.co.kr>



서부산림청, 청탁금지법 홍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28일 남원역 광장에서 청탁금지법 홍보 및 갑질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연한 부정청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을 공식사회부터 앞장서 뿌리 뽑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민과 남원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주요사례, 위반사례 발견 시 신고방법, 갑질주요사례, 갑질 대처 방법 등을 유관기관인 민원의총관리소와 합동으로 추진했다.

또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와 관련해 등록대상자, 등록방법, 등록해택 등의 리플렛을 배부하고 공공증 해소를 위한 주민상담을 실시했다.

한편 권장현 서부청장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 국민의 기대에 맞는 청렴하고 갑질없는 문화조성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